

2016.6.25. 시행 서울시 9급 국어 시험 정답 및 해설

1	③	2	①	3	④	4	②	5	②
6	④	7	④	8	①	9	①	10	④
11	②	12	③	13	①	14	③	15	③
16	③	17	②	18	④	19	④	20	②

1. [문법/어문 규정/표준어] 난이도 下

③ 치켜세우다(=추어주다, 추어올리다 ≒ 칭찬하다)

[오답풀이]

① 샅쟁이(×) → 샅쟁이, 샅(○) / 떨어떡다(×) → 털어떡다(○)

② 셋째(×) → 셋째(○) / 애닭다(×) → 애달프다(○)

④ 광우리(×) → 광주리(○) / 강남콩(×) → 강낭콩(○)

2. [문학/현대소설] 난이도 下

① 장사 밀천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그(황수건)는 신이 났다. - 이 정보로 참의 장사가 안 될 것이라는 예측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.

[오답풀이]

② 2문단 내용은 정보의 요약적 제시에 해당한다.

③ 황수건이 '나'에 대해 표시하는 소박한 감사의 행위이다.

④ '순정의 열매를 먹듯 오래 입안에 골려 먹었다'는 표현에서 황수건을 생각하는 '나'의 호의를 짐작할 수 있다.

3. [문법/음운 변동] 난이도 下

④ 가+아서 = 가서 (음운 탈락)

[오답풀이]

① 'ㅎ'음에 의한 '자음 축약'

② 주+어라 = 쥐라 (모음 축약)

③ 'ㅎ'음에 의한 '자음 축약'

4. [문법/형태론/품사 구별] 난이도 下

② (농부가) 한들 (눈에) 떨다 : '떨다'의 주체는 '(농부가) 한들'이다. 그러므로 '수사'이다.

[오답풀이]

① 한 권: '권'을 꾸미는 관형사

③ 두 사람: '사람'을 꾸미는 관형사

④ 두세 개: '개'를 꾸미는 관형사

5. [어휘/고유어] 난이도 中上

② 비나리치다: 아침을 해가며 환심을 사다.(한샘 어휘의 힘 20쪽 126번 단어)

[오답풀이]

① 노느매기: (한샘 <어휘의 힘> 26쪽 165번 단어)

③ 가리사니: 사물을 판단할 만한 지각이나 실마리 예 가리사니가 서다. 일이 복잡하게 얽혀 가리사니를 잡을 수가 없다.

④ 던적스럽다: 예 돈푼이나 있다고 너무 던적스럽게 굴지 마라.

6. [어문규정/외래어 표기법] 난이도 下

④ 배지(○)/뺏지(×) 양코르(○)/양쿨(×) 콘테스트(○) 난센스(○)

[오답풀이]

① 엘로우(×) → 엘로(○)

② 알쿨(×) → 알코올(○) 씨클(×) → 서클(○)

③ 도너츠(×) → 도넛(○)

[2013. 서울시 9급 시험에 '도넛(○), 앵콜(×), 난센스(×)'가 출제되었었다.]

7. [비문학/내용 파악] 난이도 中

④ 신문 보도 (2)에 따른, 단독세대원은 공공아이핀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해명 자료 (2)에서 해결되지 않았다. 해명 자료 (2)에서는, 국내 주소지 이전으로 단독세대원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해명뿐이다.

[오답풀이]

① (1)은 개략적이고, (2)는 상세한 설명이다.

② 단독세대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.

③ '주민등록증 발급일자나 대리인 신청으로'라는 구절은 접속이 대등하지 않다. '본인과 국내에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이나 대리인 신청으로' 정도로 고쳐야 한다.

8. [어문규정/표준 발음법] 난이도 下

① 디근이[디그시](○) 홀이불[혼니불](○)

[오답풀이]

② 뚫는[뚫는](×) → [뚫른](○)

③ 넓죽하다[넙죽카다](×) → [넙쭈카다](○)

④ 흙만[흑만](×) → [홍만](○)

9. [문법/형태론/단어의 짜임] 난이도 中

① 꽃- + -이 : 파생 / 책 + 꽃이 : 합성 → 책꽃이

[오답풀이]

② 헛(접두사) + 소리(어근) = 헛소리(파생어)

③ 가리(어근) + 개(접미사) =가리개(파생어)

④ 흔들(어근) + 리(피동 접미사) + ㅁ(명사형 어미) = 흔들림(파생어)

10 [어휘/한자 표기] 난이도 中

④ 집중력(集中力): 마음이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힘

[오답풀이]

① 중요(仲要)(×) → 중요(重要): 귀중(貴重)하고 요긴(要緊)함

② 대중(對衆)(×) → 대중(大衆): 수많은 사람의 무리

③ 중개사(重介士)(×) → 중개사(仲介士): 제삼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

11. [문학/현대시] 난이도 下

구상 '초토의 시'(연작시) 15편 중 8편째 작품 '적군 묘지 앞에서'(1956년) - 6·25 전쟁의 비극을 노래함

② 이범선 「오발탄」 - 전후문학. 6·25 직후의 피난민의 피폐한 삶을 파헤침. 남산 밑 해방촌이 배경임.

[오답풀이]

① 김주영 「객주」 - 19세기 후반 한말의 상인사회를 중심으로 다룬 장편소설

③ 박경리 「토지」 -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한 가문의 몰락과 재건과정을 그린 16권으로 된 대하소설

④ 황석영 「장길산」 - 조선 숙종조의 실제 인물 장길산을 주인공으로 한 전 10권의 대하역사소설

12. [문법/통사론/문법 범주] 난이도 中

③ 넓다(형용사) → 넓히다(사동사) 따라서 '동사만 사동화할 수 있다'라는 설명은 잘못되었다.

[오답풀이]

① '-게 하다'의 긴 사동문(통사적 사동)과 '이, 히, 리, 기 ...' 등의 접미사를 사용하는 짧은 사동문(파생적 사동) 두 가지 유형이 있다.

③ 아이가(주어) → 아이에게(부사어)

마당이(주어) → 마당을(목적어)

④ 먹었다(두 자리 서술어) → 먹게 하다(세 자리 서술어)

넓다(한 자리 서술어) → 넓히다(두 자리 서술어)

13. [국어의 특질/우리말의 분류] 난이도 中

① 심지어(甚至於), 어차피(於此彼), 주전자(酒煎子) - 한자어이다.

[오답풀이]

② 학교(學校), 공장(工場), 도로(道路), 자전거(自轉車), 자동차(自動車)

③ 고무(프랑스 어), 담배(포르투갈 어), 가방(일본어), 빵(포르투갈 어),

냄비(일본어)

④ 비어(卑語): 점잖지 못하고 천한 말

14. [문법/통사론/문장 성분] 난이도 中

③ ‘오늘 내가(주어) 본(서술어)’은 주어, 서술어를 가진 절(節)이며, ‘영화를 꾸미는 관형어, 즉 관형사절이다.

[오답풀이]

① ‘철수’, ‘밥’은 단어이자 어절이다. 그러나 ‘철수’는 주어, ‘밥’은 목적어이다.

② ‘그 사람이’는 주어절이 아니라 주어구이다. ‘그런 심한 말을’은 목적어절이 아니다. ‘그런 심한’이라는 관형사절이 ‘말을’이라는 목적어를 꾸미고 있다.

④ ‘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’는 주어 성분의 명사절이다.

15. [어휘/한자 성어의 쓰임] 난이도 中

③ 기호지세(騎虎之勢):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 중도에 내릴 수 없는 것처럼 도중에서 그만두거나 물러설 수 없는 내친 형세를 이르는 말 (한샘 어휘의 힘 37쪽 278번 단어)

[오답풀이]

① 등고자비(登高自卑): ①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낮은 곳부터 밟아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차례를 밟아야 한다는 말 ② 지위가 높아질수록 스스로 낮춘다는 말(한샘 어휘의 힘 49쪽 378번 단어)

② 각자무치(角者無齒): 뿔이 있는 짐승은 이가 없다는 뜻으로,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나 복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말(2016. 3. 1차 순경 채용시험 출제)

④ 순망치한(唇亡齒寒):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, 서로 돕던 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위험하다는 뜻(한샘 어휘의 힘 81쪽 657번 단어)

16. [문학/현대문학사] 난이도 下

③ ㉠ 1900년대(개화기문학시대) - ㉡ 1910년대(2인문단시대) - ㉢ 1920년대(현대문학의 확립기) - ㉣ 1930년대(현대문학의 성숙기) - ㉤ 1940년대 전반기(일제의 탄압으로 인한 암흑기)

17. [어휘/사전의 뜻] 난이도 上

② ㉠㉢ 산이 호수에 비치다.(그림자, 영상)

[오답 풀이]

① 안이 비치다. → ㉠㉤ / ㉠㉡ 어둠 속에 달빛이 비치다.

③ 결혼 문제를 비쳤더니 → ㉢㉤

④ 성의 없는 사람으로 비치기 쉽다. → ㉡

18. [고문법/훈민정음] 난이도 下

④ 연서(連書) - 니△너쓰기: 순정음 만드는 법 병 품 뺑 뺑

[오답풀이]

① ㄱ :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은 모양[설근폐후지형(舌根閉喉之形)]

② 가획의 원리 : ㄱ → ㅋ / ㄴ → ㄷ ㅌ / ㄹ → ㄹ ㄹ / ㅅ → ㅆ ㅆ / ㅇ → ㅎ ㅎ 총 9개

③ 초성 17자 중성 11자 모두 28자이다. 중성은 초성을 다시 사용했다.

19. [어문규정/띄어쓰기] 난이도 下

④ 나대로 - 조사는 붙인다. / 갈ㄹ데가 - ‘데’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. / 가고ㄹ싶은ㄹ데로 - ‘데로’는 ‘곳으로’라는 뜻이다. ‘대로’가 아니니, 착각하지 말 것.

[오답풀이]

① 타협점은ㄹ커녕(×) → 타협점은커녕(○)

② 바람ㄹ소리ㄹ밖에ㄹ들리지ㄹ않았다.(×) → 바람ㄹ소리밖에ㄹ들리지ㄹ않았다.(○) ‘밖에’는 조사. 뒤에 부정어가 온다.

③ 그ㄹ만큼(×) → 그만ㄹ만큼(○) : ‘만큼’은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. 있을만큼만(×) → 있을ㄹ만큼만(○) : ‘만큼’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.

20. [어휘/한자 표기] 난이도 上

② 麥秀之嘆(맥수지탄): 나라를 잃음에 대한 탄식. 기자가 은나라가 망한 후 은의 궁궐터에 보리가 꽤어 있는 황량한 모습을 보고 한탄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함.(한샘 어휘의 힘 57쪽 433번 단어)

[오답풀이]

① 溫故知新(온고지신):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다.

‘古(옛/오래 될 고)’는 ‘고대(古代), 만고(萬古), 고적(古蹟), 고조선(古朝鮮)’ 등으로 쓰인다.

‘故(옛/연고/선례 고)’는 ‘고인(故人 죽은 사람), 고향(故鄉), 죽마고우(竹馬故友), 사고(事故), 연고(緣故), 온고지신(溫故知新)’ 등으로 쓰인다.(한샘 어휘의 힘 93쪽 756번 단어)

③ 識字憂患(식자우환): 글자를 아는 것이 탈. 학식이 있는 것이 도리어 근심을 사게 됨을 말함. 者(사람 자)(×) → 字(글자 자)(○) (한샘 어휘의 힘 81쪽 658번 단어)

④ 左顧右盼(좌고우면) 좌우를 자주 둘러본다는 뜻으로, 무슨 일에 얼른 결정을 짓지 못함을 비유함. 考(생각할 고)(×) → 顧(돌아볼 고)(○) (한샘 어휘의 힘 115쪽 956번 단어)

[총평]

1. 총 2쪽(10문항 - 10문항)

2. 출제 영역

문법 10문항 / 어휘 6문항 / 독해(비문학) 1문항 / 문학 3문항

• 문법과 어휘 문제에 집중되었다. 지문을 이용하는 문제가 넷밖에 안 되는 것은 역시 출제 쪽수의 제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. 2쪽에 출제되는 한 문법, 어휘에 치중할 수밖에 없으리라.

3. 문법(10문항) : 음운론, 형태론 2, 통사론 2 / 띄어쓰기, 표준어, 표준 발음, 외래어 / 고문법

폭넓게 출제되었다. 난이도 中 3문항 下 7문항으로 분류된다.

어휘(6문항) : 고유어 / 한자 표기 2 / 한자 성어 / 사전 풀이 / 우리말 분류

역시 어휘가 공무원 시험의 성패를 가른다. 한자를 꾸준히 다져야 한다. 난이도 中 3문항 中上 1문항 上 2문항으로 분류된다.

비문학 독해(1문항) : 내용 파악

난이도 中에 해당한다.

문학 : 1930년대 소설 / 6·25 배경 시 - 소설 / 현대문학사 모두 난이도 下에 해당한다.

4. 난이도 上 2문항 / 中上 1문항 / 中 7문항 / 下 10문항

5. 전체적으로 쉬웠다. 만점을 목표로 하고 시험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. 실수는 있을 수 없다.

어휘, 고유어, 한자어, 특히 한자 쓰기, 성어 등은 매일같이 학습해 나가야 한다. 공무원 국어 시험은 어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. 필승의 마음! 공부는 정신력으로 하는 것이다.